

혁신도시 효과에 새롭게 주목받는 나주 불회사

천년고찰 이야기·문화속으로 '고즈넉한 산책'

대웅전·석장승·연리목 등 보석같은 불거리 풍성 일봉암 오르면 나주호 한눈에 명물 디딜방아도 복원키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 등 조성 본격화되면서 다도면 덕룡산 자락에 자리한 고찰 불회사(佛舍寺)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타지역에서 나주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불회사는 좋은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나주시도 불회사의 명물 중 하나였던 디딜방아 복원에 나서는 등 불회사 알리기에 나섰다.

◇도시민 사로잡는 풍경=불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광주와 빛가람등지에서 가깝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문화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불회사 가는 길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주호 펼쳐져 있다. 지난 1976년 완공된 나주호는 아직까지 한 번도 녹조가 끼지 않을 만큼 맑은 담수다. 나주호와 다도면을 지나 꼬불꼬불 아름다운 산길을 두 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르막에 불회사 일주문이 나온다.

나주호가 조성되기 전에는 댐 물길에 수몰된 산리리를 거쳐 현재 남아있는 마산리를 지나야 절 입구에 도착하는 첩첩산중 오지였다.

불회사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석가탄신일이 오면 절 입구에서부터 절까지 1km 계곡 길에 옛장수 등 상인들과 불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주문에서 본당까지는 풍성한 편백 숲길이 조성돼 있다. 수령 600여 년 된 연리목(連理木)도 불회사를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다.

또 덕룡산의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숲길에서는 느긋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찾는 이가 더욱 늘고 있다.

불회사 뒤편으로는 동백나무숲과 비자림이 조성돼 있다. 덕룡산 비자나무는 어느 산에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나무이다. 열매가 아몬드처럼 생겼는데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볶아서 먹으며 구수한 맛이 난다.

특히 비자나무 밑 아생 녹차밭도 불회사의 보석 같은 볼거리다. 기록에 따르면 마라난타가 불회사를 창건하고 차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에 국내 차문화의 출발지를 불 회사라고 주장하는 저서도 전해져 오고 있다.

◇보물과 문화재도 풍성=불회사 창건 기록은 1978년 불회사 큰 법당 번과 불사



일봉암자에서 내려다 본 나주호.



보물 제1310호로 지정된 불회사 대웅전.



불회사의 '얼굴' 석장승.

때 발견한 '호좌남평 덕룡산 불회사(佛護寺) 대법당 견건상량문'에 남아있다. 상량문 기록에 의하면 불회사는 366년 인도출신 마라난타 스님이 창건했다. 상량문의 내용대로라면 불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된 사찰이며, 한국 불교 전래를 6년이나 더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처음 창건 당시는 불회사였다가 1808년(순조 8) 무렵부터 지금과 같은 불회사로 절 이름이 바뀐 듯하다.

불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단연 돌장승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돌로 만들어진 불회사 장승은 중요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됐다. 남장승 격인 '하원당장승'과

여장승 '상원주장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큼직한 주먹코와 입가에 송곳니를 드러내 보고 있는 모습이 해학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 석장승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이 불구가 된다고 믿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인 불회사 대웅전은 보물 제1310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내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약사여래불 등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종이와 베를 겹겹이 더해 옷질을 하고 금물을 입힌 '견칠불(乾漆佛)인 비로자나불은 국내에서 화엄사와 불회사에서만 볼

수 있다. 불회사와 화엄사가 같은 시기에 국보 신청을 했지만 화엄사 건칠불만이 국보로 지정돼 있다.

과거 불회사의 명물이었던 디딜방아도 복원된다. 나주시는 주민 민원에 따라 디딜방아간을 복원할 계획이다.

불회사 주지 정년 스님은 "마라난타가 법성포로 배를 타고 들어와 불갑사를 짓고 그다음에 불회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일부 다른 견해도 있다"라며 "당시 마라난타가 법성포가 아닌 국제 항구였던 나주 영산포로 들어와 불회사를 세운 후 불갑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강인규 시장 내년 예산 확보 꺾걸음

기재부 등 주요 부처 방문

강인규(사진) 나주시장이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주요 부처를 방문하는 등 빠른 행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3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도 국비 현안사업으로 ▲나주 혁신산업단지 폐수중립처리시설 설치비 68억원 ▲왕곡 구천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9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비 19억원(총사업비 5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나주 혁신산업단지 폐수 중립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의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연립기업 유치는 물론 영산강유역 환경오염 방지



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시장은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기획재정부, 국회사입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 시장은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 예산 확보없이 신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모든 부서가 국비에 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경찰협력단체 연합회 나주경찰서(서장 이우진)는 지난 31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12개 협력단체 회장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협력단체 연합회를 개최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제정

나주시가 최근 지역 농산물의 생산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민선 6기 강인규 나주시장의 농업분야 공약 첫걸음이다.

지원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전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관내 일부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산발적·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던 나주시 로컬푸드 운동이 통합 추진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로컬푸드의 성공을 위해 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혁신도시 이전기관

과 아파트 단지 등을 타깃으로 해 ▲나주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센터 개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이전기관 구내식당내 판매 농산물 납품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나주형 로컬푸드'는 나주시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선 6기의 중점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광주일보 62th anniversary advertisement featuring a map of Jeonnam provinces, a list of phone numbers for various offices, and a cartoon illustration of people holding a banner with contact information.